



제2공항 갈등조정협, 운영안 확정부터 ‘빠거덕’

15일 회의서 사회협약위 운영계획안 심의
만장일치로 ‘보류’ … 4주 뒤 재심의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안 확정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15일 옛 경찰청 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보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4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다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승환 사회협약위원장은 회의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참여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다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심의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2공항 찬성 단체 측은 도

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심의로 곧바로 넘어가야 한다며 협의회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4주 유예기간 안에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두고 ▷제2공항 찬반 단체를 협의회에 직접 참여시키는 안 ▷찬반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안 ▷찬반 단체에는 의견권 대신 의견 개진 권리만 부여하고 조정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으로 거론되는 주민투표

나 공론조사 등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논의해 최종안을 위성곤 제주지사에게 권고하는 기구로 이달 출범을 목표로 했었다. 출범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 전까지 도민 의견 수렴 방식 논의를 포함해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까지 넘겨받아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갈등조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 내로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공항 관제 청취 10대 중국인, 군사시설도 촬영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전기로 항공 관제를 불법 청취한 10대 외국인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제주국제공항 하늘전망대 4층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탑과 항공기 간의 항공관제 교신을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제주에 입국한 A씨는 본국에서 무전기를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공항 직원이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10대인 A씨는 이전에도 보호자 없이 수 차례 국내를 오갔으며, 소지한 카메라에서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범행 경위와 대공 혐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붙어보자” 중학생들 ‘야차’ 싸움… 2명 입건

중학생들이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겨루는 ‘야차’ 싸움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10대 A군과 B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10분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학생 10여 명이 모여 몸싸움을 벌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C군과 D군은 모르는 사이였으나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학생들은 D군의 친구로, 직접 폭행을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모두 달아났고, A군과 B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C군과 D군의 신원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후보 SNS에 78번 “좋아요”… 공무원 혼계 조치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SNS(페이스북)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에게 ‘혼계’조치가 요구됐다.

15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관련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해당 행위의 경위 등을 확인한 후 지난 달 24일 조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조사 결과, 서귀포시 소속 A 공무원은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 6·3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의원 (예비)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물의 본인의 계정으로 총 78회에 걸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A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서귀포시장에게 A 공무원에 대한 혼계 조치를 요구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학생맞춤통합지원 컨퍼런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내달 1일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0월 1일 서귀포학생문화원서 ‘2026 학생맞춤통합지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현장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올해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마련됐다. 이 법은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분절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장에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성공회대학교 고병헌 교수의 기조강연, 현장 사례와 정책 제언, 현장과의 대화 순으로 이어진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이달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064-730-81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해수욕장서 기념촬영 15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을 찾은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청정 제주바다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2공항 찬성 배제된 갈등조정협 참여 못해”

제2공항 찬성 측, 담당 공무원 업무 배제 요구

제주 제2공항 찬성 측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갈등조정협의회 준비소위원회 찬성측 위원인 제2공항 지연피해 주민 대표 강호민씨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찬성 측의 핵심 요구에 답하지 않은 채 갈등조정협

의회 운영을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주민투표·공론조사 등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의제를 다루지 않는 조건으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며 “제주도 소통·제2공항담당관은 이에 답변하지 않고 협의회 운영을 확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권고한 사회협약위원회에는 찬성 측을 대변하는 인사가 없었다”며 “사회협약위원회 심의 절차와 성격을 갈등조정협의회 준비소위원회(찬성 측)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또 본보(9월 11일 자 1면)가 지적한 협의회 의적법성을 거론하며 “한 협의회가 다른 협의회 기능까지 수행하려면 법적 근거와 적법성부터 검토해야 했다”며 “법률 검토보다 정책 발표가 앞섰다”고 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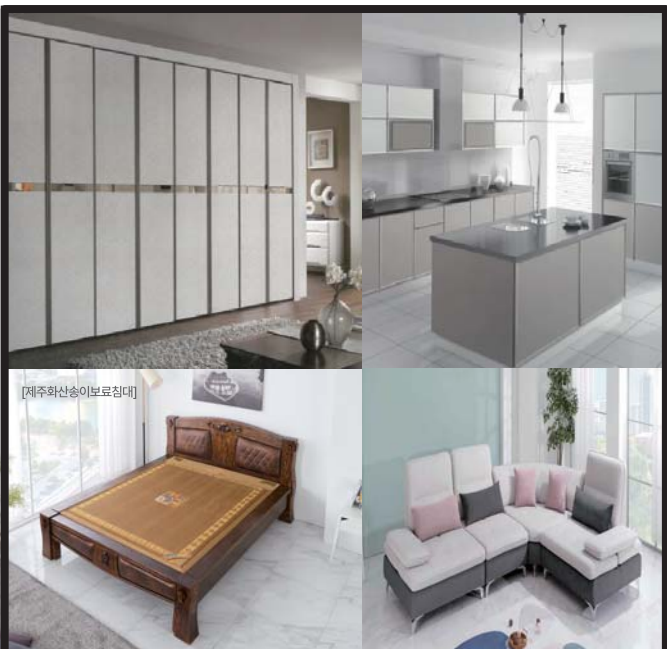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봉묘목」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봉묘목」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